

가스통 바슐라르의 역동적 상상력에 근거한 춤의 공기 이미지 연구*

- 「라 실피드」와 「프네우마」를 중심으로 -

노영재**

I. 서론

II. 바슐라르와 상상력 이론

III. 춤의 공기 이미지와 상상력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가스통 바슐라르(G. Bachelard)의 역동적 상상력 이론을 중심으로 낭만 발레 「라 실피드, *La Sylphide*」(1932)와 카롤린 칼슨(C. Carlson)의 현대춤 「프네우마, *Pneuma*」(2014)에 나타난 공기 이미지를 분석하여 춤으로 표현되는 상상력의 내면적 특질을 조명하는 데 있다. 상상력이란 쉽게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비현실적인 것을 그려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꿈, 환상, 정령 등을 그리는 19세기 낭만발레에서 상상력은 인간이 자기 내면의 신화와 원형을 교감케 하였고, 춤은 “눈으로 보는 음악”이라는 조지 발란신의 표현처럼 상상력은 추상의 영역에서도 그 가치를 발휘하였다.

상상은 모든 예술 창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예술은 세계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가장 뚜렷한 개인주의적 양식으로 재현한 것이다”(서의운 역, 2018, p. 248)라는 유미주의 작가 오스카와 일드의 말처럼 예술가는 상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구현하고, 세계 속 보편적 현상을 개인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한다. 이처럼 상상력은 21세기 창의성을 중시하는 현대 문화의 키워드로서만이 아니라 예술의 기원부터 함께 해온 무구한 인간 정신의 작용이다. 본 연구는 예술 창작의 원동력이 되는 상상력에 주목하여 춤에 발현된 상상력의 철학적 의미를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춤의 해석적, 비평적 논의를 인문학적 맥락으로 확장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성 중심의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서양 문화사에서 상상력은 주관적 사유의 산물로 그 가치를 올바르게 인정받지 못했다. 비합리적 요소로 여겨졌던 상상력이 인간 정신의 원초적 능력으로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은 바슐라르에 이르러서이다. 바슐라르는 프랑스 과학철학자이자 문학 비평가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본래 물리학을 전공하고 과학철학자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였지만,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06997).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특별연구원, balletyj@gmail.com

과학적 연구 과정에서 이미지나 상상력과 같은 어떤 정신적인 패턴이 과학 발전을 저해하는 ‘인식론적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정신적 작용은 과학의 객관적 인식을 위해서는 제거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미지와 상상력은 인간의 정신 활동에 있어 장애를 가져다주는 오류가 아니라 주관적 가치체계이고 이 주관적 가치체계야말로 인간 정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은 바슐라르는 이미지와 상상력의 긍정적 가치에 관한 탐구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이현주, 2008, p. 16).

이성의 확고한 지위를 뒤엎으며 ‘상상력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 평가받는 그의 이미지와 상상력 연구는 이후 과학철학을 떠나 문학 비평 분야에서 다양한 시론과 이미지론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바슐라르는 뚜렷한 의지 없이 상상력을 펼치는 몽상(rêverie)¹⁾ 속 ‘상상하는 주체의 의식’이 무의식과 의식을 이어준다고 여겼으며, 상상이 끌어올리는 무의식의 세계를 심층심리학의 대가 칼 구스타프 융(C. G. Jung)의 원형(archetype)²⁾ 개념과 결부시키기도 하면서 시적 상상의 창조적 근원을 탐구하는데 매진하였다(곽광수, 2009, p. 51).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은 비합리적이라 치부되었던 상상력을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요소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며, 상상력의 창의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 불, 흙, 공기라는 4원소의 질료적 성질을 기반으로 하는 상상력은 고정된 시각적 이미지가 아닌 유동하는 정신적 이미지를 산출하여 끊임없이 창조하는 정신적 능력과 인간 내면의 풍경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바슐라르 상상력의 핵심이다.

상상과 인간의 심적 문제를 결부시킨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은 문학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심리학, 철학, 신학, 시각예술 등 거의 전 인문 예술 분야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³⁾ 특히 창의성이 화두인 현대 사회에서 그가 탐구한 상상력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는 창의성 개발의 관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강성중, 2011; 송희영, 2010; 유경훈, 2009). 무용과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스통 바슐라르의 상상력 철학과 무용창의성」(박영하, 2012), 「Bachelard, G.의 상상력 원리를 적용한 발레수업이 무용창의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노은초, 2016), 「가스통 바슐라르 상상력 이론이 무용교육에 미치는 효과」(조선영, 2018)가 있다. 상상은 예술 창조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무용 창의성 개발과 바슐라르를 접목한 이들의 연구는 교육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에서 방대하게 이루어진 바슐라르는 무용 분야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이론이며 그 가치를 인식하는 소수의 선행연구도 교육 활용 가능성과 교육 현장의 실습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기에 상상력 이론에 대한 심층적 논의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의 주요 철학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춤의 인문학적 해석과 이론적 고찰을 통해 춤적 상상력

1) 바슐라르적 상상력의 근간인 몽상은 심층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적인 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심층심리학에서의 꿈은 전적으로 무의식적 내용으로 간주하는 반면 바슐라르의 몽상은 낮에 꾸는 꿈(daydream) 즉 “완전한 의식의 상태도 완전한 무의식의 상태도 아닌” 중간적 위치에 가깝다(홍명희, 2005, p. 43).

2) 원형은 칼 구스타프 융이 제창한 분석심리학의 주요 개념으로 인간의 무의식중에서도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다. “전 인류 공통의 기억이나 이미지의 모티프가 되는 것으로 인간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인 원형은 바슐라르에게 상상력의 보편성과 궁극성을 사유하게 하는 개념이 된다(이부영, 2011, p. 115).

3) 바슐라르의 상상력 철학은 시문학을 시작으로 인문, 예술, 사회과학, 현대 융복합 분야에서 다각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기에 선행연구를 모두 열거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중 4원소와 관련된 최근 연구(김선정, 2019; 성창규, 2018; 이정은, 2017; 정지훈, 2014)들은 참고문헌에 명시하였다.

의 내면적 특질에 주목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둔다.

바슐라르의 4원소론 중 공기에 초점을 둔 본 연구는 공기를 주제로 획기적인 성공을 거둠으로써 역사적으로 새로운 예술춤의 시대를 연 낭만발레 「라 실피드」와 바슐라르의 시론에 영감을 받아 동시대의 춤 언어로 공기를 체화한 「프네우마」를 대상으로 하여 두 작품에 담긴 공기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먼저 춤의 공기 이미지 고찰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4원소에 기반한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의 배경과 체계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 4원소 중 공기의 운동 이미지에 관한 상상력 이론의 의미를 고찰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작품 「라 실피드」와 「프네우마」에 담긴 공기 이미지를 역동적 상상력의 주요 개념과 특질로 조명할 것이다. 그리하여 춤이 보여주는 공기 이미지의 질료성 및 역동성의 독창적인 특질을 도출하고, 춤의 역동적 상상력의 세계가 지닌 내면적 의미와 가치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바슐라르의 전반적인 철학과 무용 작품의 배경 및 역사, 안무가 연구는 국내외 단행본,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본론에서 춤 이미지 논의는 역동적 상상력의 핵심이 담긴 바슐라르의 주요 저서를 근거로 이루어지며, 이와 함께 작품에 담긴 상상력의 특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공연 DVD⁴⁾와 공연실황 스트리밍 영상을 함께 참고한다.

II. 바슐라르와 상상력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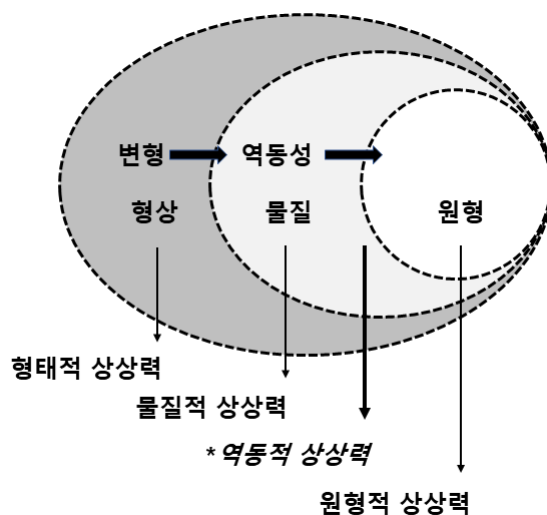
1. 4원소론과 물질적 상상력

시적 혹은 더 넓게는 예술적 관념을 담고 있는 상상과 이미지는 과학과는 정반대의 영역에 자리잡고 있다.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철학자로서 출발한 바슐라르는 상상력 연구를 통해 현대문학이론에 큰 영향을 미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소위 ‘과학적 정신에 관한 정신분석’의 일환으로 과학의 객관적 인식을 방해하는 주관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천착했던 초창기 바슐라르의 학문적 관심은 오히려 과학이 추구하는 합리성 및 객관성에서 시학으로 이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지적 탐구에 방해물로 여겨졌던 심리적 요소는 바슐라르에게 인간의 상상력이 주는 주관적 가치의 집중으로 이어졌고, 이미지와 상상력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현대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로 거듭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바슐라르의 상상력 철학은 세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첫째, 상상력이 투사되어 나타나는 4원소론, 둘째, 상상력의 작용 자체를 묘사하는 이미지의 현상학, 셋째, 상상력의 궁극성을 묘사하는 원형

4) 공연 영상물을 참고하는 데 있어 「라 실피드」는 오늘날 부르농빌(A. Bournonville) 버전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마리 탈리오니의 이미지를 논의하는 본 연구는 부르농빌뿐만 아니라 탈리오니의 초연을 고증하였다고 알려진 라코트(P. Lacotte) 버전도 함께 참고하였다. 파리오페라발레가 레퍼토리화한 라코트 버전은 피에르 라코트가 고고학자의 자세로 초연의 기록을 발굴하며 원작을 복원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19세기가 아닌 1970년대의 예술적 관점이 가미된 또 하나의 새로운 버전이라 보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F. Pouillaude는 「라 실피드」를 포함한 고전발레의 원작을 다루고 버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구술 자료의 특성과 다양한 제작 관행에 대해 비평적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F. Pouillaude, 2017, pp. 217-222).

학이다(Bachelard 저, 이가림 역, 1980, pp. 364-365). 시학 분야에서 정립된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은 형태, 물질, 역동, 원형이라는 체계를 지닌다(그림 1).



〈그림 1〉 상상력의 체계

이러한 체계는 주관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단계화되며 상상력의 핵심은 4원소론에서 비롯한 ‘물질’에 있다. 우리에게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대상을 형태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서 파악한다(홍명희, 2005, p. 31). 어떤 것을 상상할 때 대상의 외부 형상이 지닌 형태적 이미지가 아닌 대상의 성질, 질료가 가진 원초적 성질에 주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에서 항아리의 크기, 표면, 부피처럼 외곽선을 따라 그려지는 일정한 가시적 모양이 형태적 상상이라 한다면, 진흙이라는 재료가 주는 감각이나 성질을 통해 하나의 항아리 그 너머로 전개되는 상상의 변화가 바로 물질적 상상이다. 형태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객관적이며 외부의 대상에서 이미지가 고정되기 때문에 단일적이지만 물질로 파악하는 이미지는 다양한 주관적 연상을 통해 주어진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상상의 지평을 넓혀 나간다.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데에서 비롯된 고대 그리스 4원소론은 바슐라르에게 이미지의 물질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물, 불, 흙, 공기를 지칭하는 4원소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가 자연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원적 요소로 여겨졌다(노영재, 2021, p. 29). 4원소론은 고대 우주론, 연금술 등에서 확장되며 끊임없는 관심을 받았는데 바슐라르는 이를 과학에서 문학의 영역으로 가져오며 상상력의 법칙에 적용하게 된다. 바슐라르에게 있어 4원소는 화학적 분석에 의해 나타나는 네 가지 원소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의 어떤 것들과 우리 바깥의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통로이자 인간의 마음속에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힘의 공급처로 기능한다(송희영, 2010, p. 198). 다시 말하면 4원소는 외부의 자연을 움직이는 큰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자연 속에서도 살아 생동하는 마음의 원형이기도 하다. 4원소를 사람과 자연, 몸과 마음, 이미지와 실재 전체를 관통하는 우주적 힘으로 바라보았던 바슐라르는 이 네 가지 원형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교감하고 상호작용하여 내부의 창조성을 꽃피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역설하였다.

‘이미지의 4원소론’이라 일컬어지는 불, 물, 공기, 흙에 관한 그의 주요 저술은 상상력 체계의 발전과 변화를 가늠하게 한다. 바슐라르의 초기 저작인 『불의 정신분석』의 출간은 그가 과학철학에서 문학으로 시선을 돌리게끔 하여 상상력 연구의 기반을 마련해 준 전환점이었다. 애초에 이 책의 설계는 객관적 지식의 탐구라는 과학철학 연구의 연장선에서 출발하였고 따라서 문학의 영역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과학적 사유의 순수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이미지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불에 관한 이미지의 분류와 집필의 과정에서 바슐라르는 과학철학자의 이력을 뒤흔드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즉 인간의 삶에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고, 그것들은 자생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내면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홍명희, 2005, pp. 29-30). 바슐라르에게 “불은 이제 더는 과학의 대상이 아니며,” 현상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심리적 의미, 즉 정신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김병욱 역, 2007, p. 15).

『불의 정신분석』이 과도기적 시기에서 이미지론의 가설을 성립한 계기가 되었다면 그 뒤에 이어진 『물과 꿈』에서 바슐라르는 본격적으로 물질적 상상력에 관한 시론을 펼쳐나간다. 『물과 꿈』은 질료로 파악되는 물 이미지 분석을 통해 물이 불러일으키는 끊임없는 동상을 살펴보면서 물질적 상상력의 근본 원리와 중요성을 숙고한다. 바슐라르는 여기서 형태적 상상과 물질적 상상의 두 가지 축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물질적 상상이 가져다주는 자유로움과 시각에서 벗어나 정신적 활동을 수반하는 이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간다. 맑은 물, 깊은 물, 죽은 물, 부드러운 물 등 물의 질료성이 불러일으키는 상상은 고정된 대상을 벗어나 창의적이며, 한편으론 물에 관한 인간의 보편적인 정신과 연결될 때 원래의 대상마저도 지워버리는 무한한 상상의 경지로 나아간다. 『물과 꿈』의 마지막 장 ‘난폭한 물’은 분노의 심리학을 통해 물의 물질적 상상력이 지닌 운동성을 인간의 의지력과 결부시킴으로써 물질에서 나아가 보다 능동적인 경지의 상상력, 즉 역동적 상상력 개념으로 이어진다.

2. 역동적 상상력

춤의 공기 이미지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도하는 본 연구는 형태와 물질적 상상력의 단계를 넘어 역동적 상상력으로 나아간 저서, 『공기와 꿈』에 담긴 시각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이 책은 4원소론으로부터 이미지의 현상학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4원소에 대한 저술을 통해 바슐라르는 상상력의 물질적 결정이 차츰차츰 정신적 결정으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공기와 꿈』은 “하나의 관념 철학의 최초의 원리로서의 상상력”에 대한 바슐라르의 연구에 있어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곽광수, 2009, p. 49). ‘운동에 관한 상상력’이라는 부제를 지닌 『공기와 꿈』은 문학 이미지에 담긴 공기에 대한 동상이 핵심이다. 바슐라르는 물질성을 전혀 가지지 않는 무형의 공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물질 그 너머를 보는 것’, 즉 ‘이미지를 갖지 않는 상상력’에 관한 사유를 펼친다. 달리 말하면 이미지의 형태나 구성을 넘어 ‘이미지의 가동성’에 주목하면서 상상력을 무엇보다도 먼저 정신적 가동성의 한 유형, 가장 크고 제일 활발하고 또 가장 생동적인 정신적 가동성의 한 유형이라 규정한다(Bachelard 저, 정영란 역, 2017, p. 21).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객관적 존재가 아닌 주관적 존재로서 의미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며, 상상

력은 이러한 인간의 주관적 가치부여 정도에 따라 더욱 창의적이고 독자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역동적 상상력은 질료가 주는 감각에서 점차 멀어져 운동성과 자율성을 갖게 되는 단계이자 감각적 한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원형적 상상을 잇는 변형의 단계이다. 바슐라르는 4원소 중 무색투명한 공기에 서 상승과 하강의 변증법적 승화를 읽으며 인간을 역동적인 상승의 삶으로 인도하는 상상력을 말한다. 이는 곧 공기가 지닌 원초적 이미지를 탐구하는 것이며,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을 체험하고 내적 영혼의 울림을 느끼는 원형적 작용을 수반한 창의적인 변환을 의미한다.

『공기와 꿈』은 이미지의 가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운동 이미지가 지니는 풍요로운 생명력과 욕망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룬다. 인간 정신의 원형이나 이미지의 정신분석 등 심층 심리는 바슐라르의 주된 관심이었지만 이는 프로이트식 정신분석과는 거리가 있다. 공기의 운동에 대한 바슐라르적 상상은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꿈과 욕망 등은 정신분석의 주요 개념이지만 바슐라르는 프로이트의 억압 이론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기와 꿈』은 고전적 정신분석학 이슈인 하늘을 나는 꿈에 관한 반정신분석적 접근을 시작으로 정신분석가 로버트 드주아이유의 몽상적 최면 분석, 철학자 니체의 공기적 상승 심리 등을 함께 읽으며 상승과 하강의 심리를 상상과 결부시켜 탐구하는 데 주력한다. 더불어 날개, 하늘, 구름, 별과 같은 구체적 시적 메타포에 담긴 무형의 역동성을 조명함으로써 물질을 증가하는 역동적 상상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III. 춤의 공기 이미지와 상상력

본 절에서는 공기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두 작품, 「라 실피드」와 「프네우마」를 바슐라르의 역동적 상상력 이론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두 작품을 논의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라 실피드」는 19세기 공기 이미지의 상상에 담긴 특질을 바슐라르의 시각에서 읽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두 번째, 「프네우마」는 바슐라르의 저서 『공기와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입한 안무가 칼송의 공기 이미지 재현 방식과 특질을 바슐라르의 공기 시론 텍스트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개별 작품이 다루는 공기 이미지가 산출하는 질료성과 운동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예술적 표현 방식을 바슐라르적 상상과 연계해 논의하는 것이 본론의 핵심이다.

1. 「라 실피드」의 공기 이미지와 상상력: 수직과 승화

서양 무용사에서 공기가 큰 주목을 받았던 작품은 19세기 낭만발레 「라 실피드」이다. 실피드(sylphide) 혹은 실프(sylph)는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의 체계를 이루는 4원소 중 공기에 해당한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16세기 스위스 연금술사 파라켈수스의 업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이자 연금술사인 파라켈수스는 자신의 저서 *A Book on Nymphs, Sylphs, Pygmies, and Salamanders, and on the Other Spirits*(1566)에 공기(Sylph), 불(Salamender), 물(Undine), 흙(Gnome) 등 4원소 각각에 이름을 붙여 정령으로 의인화하는 신화적 체계를 만들었다. 17세기 중엽부터 용어로 정착한 실프는 라틴어 숲(sylvestris)과 님프(nympha)의 합성어로 원래 공기에 거주하는 영이란 의미였으나, 19세기에

들어 가너리고 우아한 여성 혹은 소녀를 지칭하게 된다(노영재, 2021, p. 29).

파라켈수스가 신비롭게 정의한 실프는 17, 18세기 알렉산더 포프(A. Pope)와 존 밀턴(J. Milton)의 시, 셰익스피어(W. Shakespeare)의 희곡 등에서 여러 캐릭터로 등장하지만 19세기에 들어 실프가 영원한 젊음을 소유한 작은 여성 요정의 이미지로 고정된 것은 바로 발레 「라 실피드」의 획기적인 성공의 영향이 컸다. 여기서 실프는 낭만적인 형상으로만 남아있으며 투명한 삼림 지대의 거주하며 종종 부주의한 남성을 매혹하는 존재로도 묘사된다(Merriam-Webster Dictionary, *Sylph*).

역동적 상상의 원천인 공기는 4원소 중 유일하게 무색무취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정체와 흐름을 반복하는 에너지를 지닌 보이지 않는 운동성을 지닌다. 실프의 어원이 님프와 숲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숲속의 나무와 바람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공기는 산들바람, 즉 나뭇가지를 흔들고 부드럽게 빠져 나가는 바람의 유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살랑거리는 바람이 내는 소리는 젊은 여성의 노랫소리에도 비견된다. 「라 실피드」 초연에서의 주역 마리 탈리오니는 몽상 속에서 남자 주인공 제임스를 뒤흔드는 공기의 정령으로 등장하는데 그 모습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묘사되고 있다.

은밀하게 나는 듯한 스텝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표현을 불허할 정도로 인상적이다(...) 요정의 수줍은 우아함, 방자한 흥겨움, 그리고 예술적인 겸손함을 묘사하는 데에는 나비의 우유부단한 비행, 혹은 4월의 부드러운 바람이 꽃에서 날려 보내 공중에서 부유하는 꽃술덩어리 정도가 이에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탈리오니는 실제로 인간이 아닐 것이다. 하느님도 탈리오니 같은 천사를 상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Cass 저, 김말복 역, 1998, p. 156).

탈리오니의 공기 이미지를 즉, 바슐라르적 시각에서 외형이 아닌 질료적, 운동적 상상에 주목한다는 것은 곧 공기로서의 탈리오니가 보여주는 동작의 질과 운동 감각에 초점을 두며 그 이미지를 통해 상상의 본질 혹은 내면을 숙고해보는 것이다. 바슐라르가 말하는 공기에 관한 몽상은 주관적인 상태로 시적 화자나 시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공기가 되어 겪는 원초적 체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몽상 속 이미지는 내부에서 스스로 상상되는 정신 심리적 현실이다(Bachelard 저, 정영란 역, 2017, p. 44). 보이지 않는 공기의 외형적 구현은 극히 제한적이듯, 춤에서도 무용수의 가너린 실체만으로 공기의 정령이 이상적으로 구현되지는 않는다.

탈리오니가 현실적인 아름다움과 여성스러운 태도를 넘어 천사와 같은 비인간적인 천상의 존재로까지 격상되는 배경에는 형상을 초월하고 물질을 넘어서는 내면의 상상이 동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의 〈그림 1〉에서와 같이 바슐라르는 형상적 상상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역동적 상상은 질료적 상상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물질적 원소는 상상하는 정신 심리에 지속성을 제공하는 훌륭한 인도자이며, 물질적 상상력에 의해 열정적으로 수용된 모든 원소는 역동적 상상력을 위해 각별한 승화, 특정적 초월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앞의 책, p.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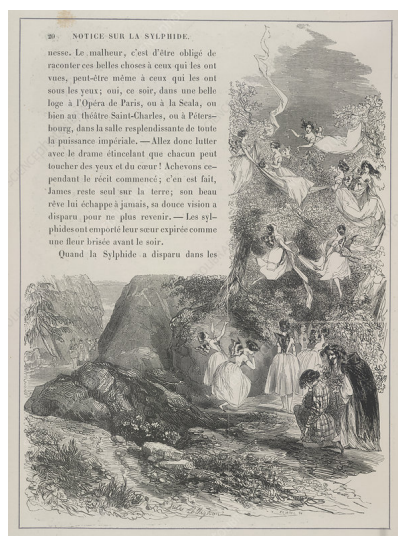
바슐라르는 정신분석의 고전적 주제인 ‘하늘을 나는 꿈’을 통해 비행이 지닌 역동적 상상의 본질을 수직성과 변증법적 승화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역동적 상상의 바탕에는 발끝으로 가벼이 디디거나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포인트 워크(en pointe),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부유하는 듯한 부드러운 팔 동작과 이와 결부된 백색 의상이 주는 환영 효과 등과 같은, 이전의 춤 기교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기의 질료적 성질이 가미된 독특한 신체 감각이 존재하고 있다. 동작은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용하면서

도 깃털처럼 떠야 하고 팔 동작은 평론가 고티에의 비유처럼 ‘긴 시(long poem)’를 능가할 정도로 여운을 남겨야 한다(Boisseau, July 5, 2017). 상승의 상상력에 관해 바슐라르는 “모든 메타포 중에서 고도와 상승, 깊이와 하강, 추락에 관한 메타포들은 전형적 의미에서 공리적인 메타포”(Bachelard 저, 정영란 역, 2017, p. 37)라 역설했듯이 「라 실피드」에서 공기 정령의 자유로운 상승과 비행은 정신 심리의 승화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비행에 관한 몽상에서 무엇보다 바슐라르는 시각적 이미지보다는 본질적 체험을 강조한다. 즉, 비행에서 실제 새처럼 퍼덕이는 날개는 형식적 외형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한 원초적 상상으로 이끄는 것은 헤르메스의 발뒤꿈치에 달린 날개, 밤의 여행자인 메르큐리우스의 뒤축 날개들과 같은 것이다(앞의 책, 2017, pp. 70-71). 이처럼 극미한 날개를 “몽상적 날개”라 지칭하는데, 실프의 이미지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몽상적 날개의 은유를 변증법적 승화와 연계해 대입해볼 수 있다.

실프의 등에 달린 작은 날개는 정령이라는 최소한의 표지와 상징으로만 존재할 뿐 춤 동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탈리오니의 ‘공기적 영성’은 발끝으로 춤추는 독특한 스텝에서 나온다. 공기와도 같은 가벼운 움직임을 가능케 한 슈즈는 오늘날의 단단한 토슈즈가 아닌 당대 여성들이 신는 일상의 구두와 비슷한 모양이었으나 탈리오니는 작은 발끝으로 가벼운 포즈와 점프를 자유자재로 구사함으로써 일상의 차원을 완벽히 지워버린 것이다. 춤에서 몽상적 날개는 바로 실프의 발끝에 달려있으며 관객에게는 상승의 체험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용학자 수잔 포스터(S. L. Foster)는 자신의 저서 *Choreography and Narrative*(1998)에서 낭만주의 시대 환영에 걸맞은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 고안된 물리적 장치에 담긴 욕망을 언급한다. 비현실성의 탐색을 돕는 정교한 기계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가벼움과 비행의 가능성을 제시한다(Foster, 1996, p. 235). 이러한 연출은 공기를 물질로서의 가벼움 뿐만 아니라 속도와 공간감을 동반한 이동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한 것이다. 한층 진화된 무대 장치를 이용한 상승 심리는 시대를 지나며 작품 전체에 걸쳐 포진되어있다. 1막에서는 벽난로에서 실프가 순식간에 들어 올려지며 사라지는 모습이나 달빛이 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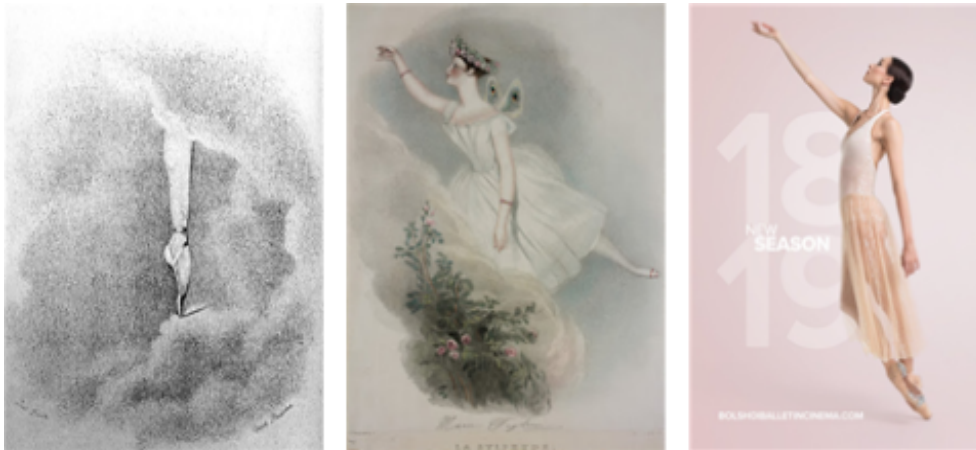


〈그림 2〉 Fairies(British Library/Science Photo Library)(좌)⁵⁾와 「라 실피드」(1971)(우)⁶⁾

큰 창을 통해 들어와 사뿐히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치, 그리고 2막에서는 실제 공중으로 부상하고 날아가는 모습 등을 통해 실프의 고양된 초인간적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다(그림 2). 이는 천상의 존재에 대한 상상과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며 자유로움에 대한 심적 본능이 수직적인 추진력을 지니고 발현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디든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기적 상상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형이상학적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공기 이미지는 또한 19세기 컬러 석판화의 발전과도 연계되는데 낭만주의 석판화는 낭만발레의 인기와 맞물려 당대 발레의 기록이 담긴 중요한 사료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춤 도상들은 춤의 형태와 테크닉을 짐작할 수 있는 사료일 뿐만 아니라 탈리오니의 무대 위 역동적 모습은 다양한 석판화와 스케치를 양산하는 현상을 불러왔다. 시적인 혹은 영적인 무용수로 평가받았던 탈리오니의 실프는 그림 속에서 곧잘 나무, 하늘, 안개, 구름 등 자연과 결합해 더욱 몽환적으로 묘사됨으로써 공기 요정 이미지에 대한 상상이 무한히 증폭되었음을 보여준다(Homans, 2010, p. 141). 한편으로 이러한 석판화의 상업적 성공은 발레리나의 이미지가 중산층에게 널리 소비되는 대중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이미지가 되기도 하였다(Garafola, 1997, p. 129).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미적으로 대상화된 여성이란 비판의 요소가 있지만, 가벼움과 동시에 투명한 이미지로까지 확대된 공기의 질료적 성질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오늘날에도 공연되는 「라 실피드」는 19세기 도상 속 날개 달린 낭만적 요정의 형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로맨틱 튀튀와 화관을 벗고 미니멀한 의상과 포인트 워크로 가벼움의 성질을 부각하거나 시대가 모호한 신비로운 분위기로 치환되어 공기의 상상을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이미지로 재현되기도 한다(그림 3, 4).



〈그림 3〉 탈리오니의 석판화(좌, 중앙)와 Bolshoi Ballet in Cinema 18/19 시즌(우)

- 5) Théophile Gautier, Jules Janin, Philarete Chasles 공저의 *Les Beautés de l'opéra, ou Chefs-d'oeuvre lyriques* (1845)에 실린 삽화로 실프의 상상을 이미지화한 것이다(Pappacena, 2012, p. 175).
- 6) 1971년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로 초연된 라코트 버전의 「라 실피드」로 공중을 나는 실프를 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Boisseau, July 5, 2017).



〈그림 4〉 Paris Opera Ballet 팻캐스트(좌)⁷⁾와 New York City Ballet 「라 실피드」(우)⁸⁾

2. 「프네우마」의 공기 이미지와 상상력: 열린 상상력의 대극

발레「라 실피드」가 춤을 통해 공기에 대한 상상을 구현하였다고는 하지만 시대적, 장르적 특성상 자유로운 상상으로의 전환에는 분명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칼송의 「프네우마」는 공기에 대한 이미지를 동시대적이며 실험적인 어휘로 표현하며 상상의 공간을 확장해 나간다. 1943년 미국 오클랜드 태생의 칼송은 뉴욕 월런 니콜라이 무용단을 거쳐 70년대 프랑스로 이주한 후 누벨 당스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였다. 먼저 무엇보다도 자신을 ‘유목민’, 혹은 ‘지치지 않는 여행자’라 정의하며 프랑스, 핀란드, 이태리 등을 유럽 각지에서 쉼 없이 활동해 온 그는 자신의 ‘시적인 우주(poetic universe)’를 전개하고 공유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카롤린 칼송 무용단 홈페이지). ‘시적인 우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칼송은 자신의 춤 세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 ‘시각적 시’, ‘춤추어진 시(danced poetry)’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안무가이자 시인으로 규정한다.

나는 눈을 위해 춤추지 않는다. 나는 영혼을 위해 춤을 춘다. 안무가이자 시인이기 때문에 시각적 시(visual poetry)는 내 작품의 기초이다. 나의 시는 아이디어로 가득 찬 짧은 이야기이고, 내 안무에 영향을 주며 자연의 창조적 에너지와 강하게 연결되어있다(Lamei, May 3, 2012).

바슐라르는 “시란 본질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들에 대한 갈망이며 인간의 정신 심리를 특징짓는, 새로운 것에 대한 본질적 요구와 일치한다”고 말한다(정영란 역, p. 21). 이처럼 창조적 에너지를 산출하는 자연과 영성에 심취한 칼송의 시적 안무는 시를 통해 끊임없는 이미지의 가동성과 풍요로움, 그리고 그것이 지닌 생명력에 천착한 바슐라르적 상상과 유사함을 지닌다. 칼송의 작품 대부분은 시나 철학자의 글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를 원천으로 철학과 영성을 강하게 지향한다. 그러나 텍스트에 근원을 둔 안무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상상하고 해석하도록 의미를 열어두는 것이 특징이다(연합뉴스, 2016년 9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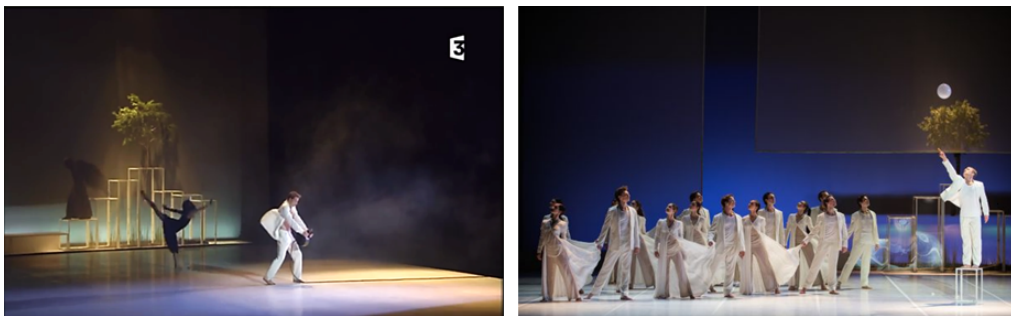
2014년 프랑스 보르도 국립발레단(Ballet de l’Opéra National de Bordeaux)에 의해 초연된 「프네

7) 2017년 파리오페라발레의 「라 실피드」 팻캐스트의 배경으로 실피드의 베일을 연상시키는 텍스처의 커튼 사이로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는 이미지만을 담았다(<https://www.operadeparis.fr/en/magazine/podcast-la-sylphide>).

8) 2018년 피터 마틴스(P. Martins) 연출의 뉴욕시티발레 「라 실피드」 공연 트레일러로 실피드의 여성 이미지는 최소화하고 빛과 바람의 흐름을 쫓아 숲으로 달려가는 제임스의 모습이 담겨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58LREad9oDQ>).

우마」는 칼송이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바슐라르의 『공기와 꿈』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프네우마는 그리스어로 숨(breath), 호흡, 입김을 의미하며 고대 이래로 철학적 종교적 맥락에서 ‘영(spirit)’ 혹은 ‘혼(soul)’을 뜻하기도 한다. 프네우마의 종교 철학적 의미는 나아가 현대 심리학에서 심층 심리의 역동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된다.⁹⁾ 프네우마의 어원을 확장해보면 생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성질의 호흡이자 운동 상태를 지닌 공기나 바람이기도 하다. 이는 파라켈수스가 창조한 실프의 원형과도 일치한다. 바슐라르가 공기와 운동을 결합하여 인간 정신의 역동적 상상을 탐구하였듯 프네우마가 지닌 복합적 의미는 바슐라르가 상상의 원천으로 삼은 공기와 다르지 않다.

러닝타임 약 100분의 「프네우마」는 「라 실피드」와 같은 구상적인 극적 형식이나 내용 없이 공기에 관한 감각적, 질료적 이미지로 작품 전체를 가득 채운다. 막이 열리면 재즈 즉흥 연주가 개빈 브라이어스(G. Bryars)의 몽환적인 음악이 반복적으로 흐르고, 바람을 일으키는 남성 무용수와 함께 움직이는 여성 무용수가 등장한다. 배경엔 나무 한 그루가 있고, 날개 달린 검은 의상의 무용수가 그림자처럼 천천히 무대를 가로질러 지나간다. 첫 장면은 자연, 시, 영적인 감각을 중요시하는 칼송의 안무 철학이 단적으로 엿보이는 공간이다.



〈그림 5〉 작품 프네우마(medici.tv)

이 작품은 특히 우주 보편적 영역(구름, 별, 해, 달과 같은 대기의 상층부) 그리고 신화적 기원, 또 다른 차원의 존재 같은 것에 주목한 결과이다. 여기서 칼송은 전체적으로 바슐라르의 시론 중 특히 무형의 공기와 정신 심리, 비행하는 꿈, 그리고 하늘, 나무, 대지로 연결되는 자연 이미지의 확충에 집중한다. 자연 이미지는 세트에 미리 설치된 한 그루 나무 이외에도 무용수들이 소품을 통해 푸른 잔디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풀밭을 한시적으로 연출하며 자연 속 공기의 존재와 흐름의 역동을 구체화한다.

역동적 상상력은 전혀 새로운 이미지를 산출하는 공기의 풍요로움을 묘사한다. 부유하는 듯한 느린 움직임으로 시작하는 공기 이미지들은 더욱 다양화되는데, 때론 흑백의 의상을 입은 무용수 간의 대비를 통해, 때론 솔로와 그룹의 교차를 통해 다양한 무게와 이질적인 양감을 드러낸다. 또한 군무의 동선과는 대조적으로 투명 하이힐을 신은 한 무용수는 예측할 수 없는 가벼운 몸짓과 더불어 입술 모양으로 유추할 수 있는 호흡과 소리의 느낌에 집중하면서 공기가 지닌 부정형성에 집중하기도 한다. 즉흥적이

9) 칼 송의 분석심리학에서는 pneuma는 영(spirit)으로 psyche는 혼(soul)으로 뚜렷이 구별하고 있다. 이는 각각 남성성 혹은 이성(logos)과 여성성 혹은 감정(eros)의 영역으로 인식되며, 심혼의 상징과 대극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면서도 자유분방한 모습은 공기의 원형, 즉 요정이나 새와 같은 형태가 아닌 숨과 소리로만 존재하는 공기의 질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태를 이룰 가능성이 없고 물질성마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공기는 이미지를 가지지 않는 상상력, 즉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지를 지워가는, 무한하게 열린 상상력의 힘을 말한다. 친숙한 기억이나 습관에서 더 나아가 상상 영역(상상 세계)이 지닌 넓은 후광에 주목하며 인간의 정신 심리 속에서 상상 작용은 바로 열림(개방)의 체험일 뿐만 아니라, 새로움의 경험 바로 그것이기도 하다(Bachelard 저, 정영란 역, 2017, p. 20).

칼송은 『공기와 꿈』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심사인 영성에서부터 인간의 정신 심리까지 파고든다. 작품의 소개글에서 「프네우마」는 “시적이면서도 인류에 대한 송가”라고 명시하면서, 작품은 공기의 몽환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는 인간 조건의 이중성이 담겨있다고 언급된다(Ooppera Baletti 홈페이지). 이는 작품이 이중의 주제를 지녔다기보다는, 바슐라르가 ‘하늘을 나는 꿈’의 정신분석에서 보았듯이, 변증법적 승화에 담긴 대극적 성질을 인간의 본성과 연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슐라르는 날개 달린 새의 형태를 이카루스 신화와 연결 짓는데, 칼송은 이카루스의 이미지를 작품의 시작부터 기저에 지속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무형의 공기가 주는 열린 상상과 시각적 형태에만 갇힌 상상의 대조를 보여준다.



〈그림 6〉 작품 프네우마(medici.tv)

검고 큰 날개를 지닌 무용수는 비행과 상승을 향한 열망과 대지에 묶인 현실 사이에 놓인 변증법적 존재를 상징한다. 「라 실피드」의 정령과 같이 새도 공기의 인격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비행하는 꿈에 관한 논의에서 바슐라르는 눈으로 보이는 날개는 “고대적으로부터 내려오는 합리화의 표상”이라 지적하며 새의 형태를 통해 비행하는 인간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 것이라 한다(앞의 책, p. 66). 작품에서 이카루스의 모습은 일종의 ‘갇힌 새’의 모습으로 매우 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날개를 힘껏 펼쳐 보이지 않고 작품의 시작과 끝까지 시종일관 구부러진 자세와 조용하고 낮은 스텝으로 박제된 상승 열망과 상상적 추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7〉 작품 프네우마(medici, tv)

배경으로 등장하는 푸른 잎의 나무 오브제 역시 이카루스 상징과 더불어 주목할 부분이다. 자유롭게 떠다니는 공기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는 얼핏 상반된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바슐라르는 ‘공기나무’라는 주제로 식물과 역동적 상상을 연결한다. 대지에 속하는 존재라도 공기적 참여라는 원칙에 따라 꿈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앞의 책, p. 49).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 속의 나무는 고정된 대상이 아닌 하늘을 향해 힘껏 높이 솟아오르는 ‘수직적 삶’을 사는 존재로 묘사된다. 따라서 나무 오브제는 “나무의 몸가짐, 나무가 지닌 본질적으로 수직적인 행위, 공기적이며 공중 높이 걸린 나무의 특성”을 그린다(앞의 책, p. 364).

작품에서 나무 오브제의 위치는 바닥과 분리되어 흰 구름 같은 조명 효과 위에 있으며, 작품 전개에 따라 서서히 공중으로 오르고 이동하고 때론 연기에 묻혀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목재나 물질로서의 나무가 아닌 질료 자체가 공기적으로 상상되는 나무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나무가 지닌 운동성과 생성의 상상력을 강조하고 있다(앞의 책, p. 361). 마지막까지 나무는 이동성을 보이며 엔딩에서는 이카루스의 검은 형상과 대조됨으로써 상승과 추락이라는 역동의 대극을 보여준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바슐라르의 역동적 상상력 이론을 바탕으로 「라 실피드」와 「프네우마」에 나타난 공기 이미지의 특질을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우선 4원소를 기반으로 한 바슐라르의 주요 저서를 중심으로 물질과 역동으로 이어지는 상상력 이론의 핵심을 살펴본 후 『공기와 꿈』에 담긴 역동적 상상에 관한 시론을 투영하여 두 작품을 세부적으로 해석해보았다.

요약하면 첫째, 「라 실피드」는 19세기 초연작에서 파생된 실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공리적 은유인 수직적 상승과 승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은유는 공기의 ‘보편적’ 성질에 대한 심취로, 물질로서의 공기가 지닌 가벼움과 기화라는 작용이 내포한 상승과 승화를 의미한다. 「라 실피드」의 춤과 무대 연출 그리고 이로 인해 재생산된 이미지는 이러한 수직적 상상이 체화되어있다. 특히 토슈즈는 대지를 딛고 오르는 몽상적 날개의 변증법적 승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토슈즈는 외형적인 춤 테크닉의 혁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바슐라르의 시각을 접목해볼 때 공기에 관한 상상을 사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 움직임의 형태에서 나아가 동작의 질적인 측면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프네우마」는 바슐라르의 공기 시학을 문학의 언어가 아닌 현대춤의 추상적 언어로 탐색한 작품이다. 따라서 ‘몸으로 쓰는 시’라는 칼송의 안무 정의에 주목하여 몸의 언어가 공명하는 열린 상상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작품에 대한 지적인 해석을 경계한 칼송의 안무는 추상적 움직임의 확장을 통해 공기가 지닌 운동적 성질을 폭넓게 탐구한다. 또한 이카루스에 관한 바슐라르의 해석에 주목하여 상승과 추락의 변증법을 시각화함으로써 공기의 공리적 성질과 물질성을 넘어 대극의 성질을 지닌 인간의 본성을 그리는 원형적 교감을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4원소를 기반으로 한 바슐라르의 상상력 체계는 언어를 넘어 궁극적으로 인간 정신의 외부와 내부를 잇는 통로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그가 몽상을 통해 진정으로 가치를 발견하였던 비현실적인 물질적 상상은 인간의 보편적 정신 활동과 연계되며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지가 주는 정신적인 작용을 숙고하게끔 한다. 현대의 이미지 연구는 형상, 혹은 재현과 같이 시각적 이미지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춤은 회화나 디자인과 같은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존재한다. 신체라는 형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뚜렷이 인식될지언정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부단한 운동성을 띤 정신적 신체적 감각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물질과 원형의 사이를 잇는 역동적 상상력은 가변성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정신 작용에 뿌리를 내린다. 공기 이미지에 주목할 때, 춤으로 펼쳐지는 상상은 일상의 느낌과 시각의 실재를 재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증폭되는 이미지를 산출하고 지금껏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상징적 이미지를 창조함으로써 지각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라 실피드」와 「프네우마」는 공기라는 무형을 체화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만, 도전, 대비, 탈태, 승화 등을 통해 변모하는 몸의 언어는 역동이 결합한 감각적 상상을 그려냄으로써 본래의 지각된 대상과 거리가 멀어지며 인간 심층의 역동을 경험하게 하는 시적 몽상의 매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에 대한 상상을 춤으로 구현하는 데 적용된 다양한 시도를 역동적 상상이라는 철학적, 심리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후 본 연구가 춤적 상상의 심층적 의미를 조명해보는 하나의 방법론이 되기를 바란다.

- 곽광수(2009). *바슐라르*. 민음사.
- 이부영(2011). 분석심리학: C. G. 융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 홍명희(2005).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살림.
- Bachelard, G.(1980). *물과 꿈* (이가림 역). 문예출판사. (원저출판 1942).
- Bachelard, G.(2007). *불의 정신분석* (김병옥 역). 이학사. (원저출판 1938).
- Bachelard, G.(2017). *공기와 꿈: 운동에 관한 상상력* (정영란 역). 이학사. (원저출판 1943).
- Cass, J.(1998). *역사속의 춤* (김말복 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원저출판 1993).
- Wilde, O.(2018). *오스카 와일드 미학 강의: 사회주의에서의 인간의 영혼* (서의운 역). 좁쌀한알. (원저출판 1891).
- Foster, S. L.(1998). *Choreography and Narrative: Ballet's Staging of Story and Desire*. Indiana University Press.
- Garafola, L.(ed)(1997). *Rethinking the Sylph: New Perspectives on the Romantic Ballet*. Wesleyan University Press.
- Homans, J.(2011). *Apollo's Angels: A History of Ballet*. Random House.
- Pappacena, F.(2012). *The Language of Classical Ballet: Guide to the Interpretation of Iconographic Sources* (Michelson, B. Trans.). Gremese. (Original work published 2012).
- Pouillaude, F.(2017). *Unworking Choreography: The Notion of the Work in Dance* (Pakes, A. Trans.). Oxfo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9).
- 김선정(2019). 요한복음의 예수와 공기, 불, 물, 흙에 대한 상상력. *신학사상*, 184(1), 89-118.
- 노영재(2021). 낭만발레에 나타난 환상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무용예술학연구*, 81(1), 23-39.
- 노은초(2016). Bachelard, G.의 상상력 원리를 적용한 발레수업이 무용창의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7(3), 73-90.
- 박영하(2012).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의 상상력 철학과 무용창의성.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3), 17-39.
- 성창규(2018). 공기의 시학으로 낭만주의 시인들의 종달새와 나이팅게일 시 비교 읽기. *동서비교문학저널*, 45, 187-209.
- 송희영(2010). 바슐라르와 상상력, 그리고 현대 디지털 아트. *글로벌문화콘텐츠*, 4, 193-225.
- 유경훈(2009).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과 창의력의 철학적 기초. *영재교육연구*, 19(3), 603-646.
- 이정은(2017). 물질적 상상력에 의한 말(馬)이미지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18(4), 301-312.
- 이현주(2008). '물질적 상상력'(Material-Imagination)과 회화 이미지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정지훈(2014). 채널 ID 모션그래픽에 나타난 '공기(氣, air)' 이미지 분석. *브랜드디자인학연구*, 29, 293-306.
- 조선영(2018).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상상력 이론이 무용교육에 미치는 효과. *무용에*

술학연구, 68(1), 69-87.

권수현(2016). “73세 ‘춤의 시인’ 칼송 “나이의 한계?...지혜의 깊이 더해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0923062100005>, 2020. 12. 31.>.

Alliance(2005). La Sylphide. Paris: Paris Opera Ballet. (DVD, 2 hours 7 minutes).

Boisseau, Rosita(2017. 6. 5.). “La Sylphide, a waking dream”. <<https://www.operadeparis.fr/en/magazine/la-sylphide-a-waking-dream>, 2021. 10. 24>.

British Library / Science Photo Library. <<https://www.sciencephoto.com/media/559617/view/fairies>, 2021. 10. 31>.

Carolyn Carlson Company. <<http://carolyn-carlson.com/>, 2021. 11. 10.>.

Lamei, N.(2012, May 3). “‘I dance for the soul.’ says choreographer Carolyn Carlson”. <<http://english.ahram.org.eg/NewsContent/5/35/40789/Arts--Culture/Stage--Street/I-dance-for-the-soul,-says-choreographer-Carolyn-C.aspx>, 2021. 5. 22.>.

medici.tv homepage. <<https://www.medici.tv/en/ballets/pneuma-opera-nationale-de-bordeaux-carolyn-carlson/>, 2020. 8. 2.>

Merriam-Webster Dictionary, *Sylph*.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sylph>, 2020. 2. 12.>.

New York City Ballet Youtube Channel. <<https://www.youtube.com/watch?v=58LREad9oDQ>, 2020. 9. 18.>.

Opéra National de Paris homepage. <<https://www.operadeparis.fr/en/season-16-17/ballet/la-sylphide>, 2021. 10. 20.>.

Finnish National Opera and Ballet homepage. <<https://oopperabaletti.fi/en/repertoire-and-tickets/a-french-soiree/>, 2021. 12. 2.>.

논문투고일 2022. 02. 14.

심사일 2022. 02. 17.

심사완료일 2022. 03. 05.

A Study on Images of Air in Dance Based on G. Bachelard's Dynamic Imagination

– Focusing on *La Sylphide* and *Pneuma* –

Roh, Youngjae

Researcher of IAC, Dong-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images of air in the ballet *La Sylphide*(1832) and the contemporary dance *Pneuma*(2014), focusing on Gaston Bachelard's dynamic imagination theory and the inner characteristics of imagination expressed through dance. Drawing upon the dynamics connecting the material and the archetype, first, I explore the images of air in *La Sylphide* in the context of the axiomatic metaphor par excellence of verticality and ascension. Second, I investigate the images of air in *Pneuma* from the perspective of open imagination, paying attention to C. Carlson's notion of visual poetry. Finally, by in-depth discussion of the language of the body that is transformed through challenge, contrast, metamorphosis, and sublimation in the works, this study shows how the dancing body becomes a medium of poetic reverie that allows us to experience the dynamism of deep human beings as we move away from the object.

Keywords: Gaston Bachelard(가스통 바슐라르), Dynamic imagination(역동적 상상력), Images of air(공기 이미지), *La Sylphide*(라 실피드), *Pneuma*(프네우마)